일부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관한 연구

최길순^{1*} · 채민정²

¹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²서영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the EMT students

Gil-Soon Choi^{1*} · Min-Jeong Chae²

¹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 Kang College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Seoyeong College University

=Abstract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emergency medical students.

Methods : A total of 209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after receiving the informed consent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Results :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the subjects were above mean average. Higher correlations existed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the subjects, and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ub-factors of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had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efficacy. The self-confidence among sub-factors in the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sub-factor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subj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self-directed learning. In particular, self-efficacy and confidence of the academic

접수일 : 2013년 3월 17일 수정일 : 2013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3년 4월 19일

* Corresponding Author: Gil-Soon Choi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 Kang College University, 50 Dongmun-ro, Bukgu, Gwangju 500-714, Republic of Korea

Tel : +82-62-520-2295 Fax : +82-62-520-2527 E-mail : cgs7771@naver.com

self-efficacy sub-factors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b-factors, attitudes and self-directed learning.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s. This will be effective in managing the knowledge, informati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Key words : Self-efficacy, Attitude,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진학한 대학은 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학습에 있어서도 초·중·고 시기와는 다르게 자기주도적이며, 자기통제적인 학습의 자율성이 요구된다[1,2]. 이러한 요구에 부적절하게 대응시 전공교과 학습의 부진으로 대학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어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거나 졸업 후 취업가능성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3]. 반면 잘 적응한 학생은 학업성적의 향상과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및 개인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목표로 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4].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해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과정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학습 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

좋은 학습 태도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힘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야 하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목표를 조절·통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5].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내어 도전

적으로 공부를 하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끈기가 있다[6]. 또한 학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도전에 실패하거나 공부할 내용이 어려워도 금방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공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게 된다[7,8].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필요와 학습요구를 진단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9]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업의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0]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말한다[5].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는 학습자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6], 개인의 목표설정, 시간조절에 있어 더 나은 학습전략을 가지며 새로운 상황에서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8]. 이상과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미래 학업과정의 성취도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선행연구 논문[5,11,12]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일부 간호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였고[13],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현대 사회의 의료 환경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체계의 변화로 전문적인 지식, 임상수행능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알아보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알아보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알아본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알아본다.
- 3)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2개 대학의 응급구

조과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학생 209명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2011년 9월 05일 각 학년별 3명씩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모호한 문항 내용은 응급구조과 교수 2인, 인문사회계열 교수 2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 연구자와 지도교수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자기기입식으로 기록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204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32문항 등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Kim과 Park[14]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도구로 총 28문항, 세 개의 하위요인(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 선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산 처리하였다. Kim과 Park[14]의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74~.84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적인 Cronbach's α 값은 .947이었다. 하위요인은 자신감 .907, 자기조절 효능감 .904, 과제난이도 선호 .882이었다.

2)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도구

는 Guglielmino[15]가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 척도(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Lee[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2문항, 여섯 개의 하위요인(학습애착,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32점에서 최고 1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산 처리하였다. Lee[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1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50이었다. 하부요인은 학습 애착 .883, 자기 확신 .851, 도전에 대한 개방성 .774, 학습에 대한 호기심 .793, 자기이해 .634,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587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sio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3점이며, 하위요인에서는 자신감이 3.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2.94점, 자기조절 효능감 2.85점 순이었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1점이고, 하위요인에서는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이 3.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학습에 대한 호기심 3.31점, 자기이

Table 1.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subjects (N=204)

Academic self-efficacy	M	S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M	SD
Task difficulty preference	2.94	.69	Attachment to learning	3.19	.70
Self-control efficacy	2.85	.72	Self-innovation as learner	3.16	.65
Self-confidence	3.34	.85	Openness to challenge	3.19	.59
			Curiosity about learning	3.31	.77
			Self-understanding	3.30	.76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3.32	.77
Total academic self-efficacy	3.03	.65	Total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3.21	.59

해 3.30점, 학습에 대한 애착과 도전에 대한 개방성 3.19점,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 3.16점 순으로 6개의 하부요인 모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1학년 34.3%, 2학년 33.3%, 3학년 32.4%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63.2%, 여자는 36.8%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1세 이상이 52.0%, 21세 미만인 48.0%였으며, 거주형태에 대해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52.0%, 자취 및 기타가

31.4%, 기숙사 및 하숙이 16.7%를 차지하였다. 출신고교 유형에서는 인문계가 60.8%, 실업계는 39.2%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살펴보면<Table 2> 학년을 제외한 성별($t=3.344$, $p<.001$)과 나이($t=-2.455$, $p=.015$), 거주형태($F=3.503$, $p=.032$), 출신고교 유형($t=6.55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감(3.53 ± 0.76), 과제난이도(3.03 ± 0.60), 자기조절 효능감(2.93 ± 0.65)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나이에서는 ‘21세 이상’인 경우가 ‘21세 미만’보다 자신감(3.47 ± 0.82)과 과제난이도 선호(3.06 ± 0.63)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Table 2.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subject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y	n(%)	Task difficulty preference	Self-control efficacy	Self-confidence	Total
			M(SD)			
Grade	1st	70(34.3)	2.91(.68)	2.81(.74)	3.37(.83)	3.01(.62)
	2nd	68(33.3)	2.92(.67)	2.85(.74)	3.31(.85)	3.01(.66)
	3rd	66(32.4)	2.98(.74)	2.88(.70)	3.35(.88)	3.06(.69)
	F(p)		224(.799)	179(.836)	106(.900)	114(.893)
Gender	Male	129(63.2)	3.03(.60)	2.93(.65)	3.53(.76)	3.15(.55)
	Female	75(36.8)	2.77(.81)	2.69(.81)	3.01(.90)	2.82(.75)
	t(p)		2.482(.014)	2.183(.031)	4.411(.000)	3.344(.001)
Age (years)	Under 21	106(52.0)	2.82(.74)	2.75(.78)	3.23(.86)	2.92(.69)
	Above 21	98(48.0)	3.06(.63)	2.95(.65)	3.47(.82)	3.14(.59)
	t(p)		-2.434(.016)	-1.937(.054)	-2.023(.044)	-2.455(.015)
Type of residence	Home	106(52.0)	2.82(.68) a	2.73(.73) a	3.27(.85)	2.92(.66) a
	Dormitory, boarding house	34(16.7)	3.14(.66) b	3.05(.73) b	3.58(.82)	3.24(.60) b
	Self, relatives	64(31.4)	3.01(.72) c	2.94(.68) c	3.33(.86)	3.08(.64) c
	F(p) Scheffe		3.351(.037) a<c<b	3.445(.034) a<c<b	1.773(.172)	3.503(.032) a<c<b
High school type	General school	124(60.8)	3.15(.60)	3.08(.55)	3.60(.72)	3.26(.47)
	Graduate school	80(39.2)	2.61(.71)	2.48(.80)	2.94(.88)	2.66(.72)
	t(p)		5.589(.000)	5.931(.000)	5.633(.000)	6.554(.000)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는 ‘기숙사 및 하숙’을 하는 경우가 ‘자취 및 기타’나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과제난이도 선호(3.14 ± 0.66)와 자기조절 효능감(3.05 ± 0.73)이 높았다. 출신고교 유형에서는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가 ‘실업계나 기타’ 보다 자기조절 효능감(3.80 ± 0.55), 자신감(3.60 ± 0.72), 과제난이도 선호(3.15 ± 0.60)가 높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살펴보면 <Table 3> 학년과 거주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

($t=3.505$, $p<.001$), 나이($t=-2.780$, $p=.006$), 출신고교 유형($t=5.82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에서는 학년의 경우 사후검정 결과 3학년(3.36 ± 0.72), 2학년(3.14 ± 0.70), 1학년(3.07 ± 0.66) 순으로 학습에 대한 애착이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3.47 ± 0.69), 학습에 대한 호기심(3.41 ± 0.69), 도전에 대한 개방성(3.33 ± 0.51), 학습에 대한 애착(3.28 ± 0.63), 학습자로서 자기확신(3.28 ± 0.55)이 높았다. 나이에서는 ‘21세 이상’에서 ‘21세 미만’보다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3.43 ± 0.74), 애착(3.34 ± 0.65), 도전에 대한 개방성(3.34 ± 0.54), 학습자로서 자기확신(3.27 ± 0.62)이 높았다. 거주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Table 3.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ccording to subject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y	Attachment Learning	Self-innovation Learner	Openness challenge	Curiosity learning	Self-understanding	Acceptance responsibility learning	Total
M(SD)								
Grade	1st	3.07(.66)a	3.06(.63)	3.09(.55)	3.32(.80)	3.30(.78)	3.38(.78)	3.18(.56)
	2nd	3.14(.70)b	3.21(.71)	3.22(.63)	3.34(.82)	3.30(.83)	3.19(.83)	3.22(.62)
	3rd	3.36(.72)c	3.21(.60)	3.28(.58)	3.25(.69)	3.30(.67)	3.39(.68)	3.29(.59)
	F(p) Scheffe	3.284(.039) a<b<c	1.134(.324)	1.754(.176)	.231(.794)	.000(1.000)	1.405(.248)	1.072(.344)
Gender	Male	3.28(.63)	3.28(.55)	3.33(.51)	3.41(.69)	3.38(.71)	3.47(.69)	3.33(.50)
	Female	3.03(.78)	2.94(.74)	2.96(.65)	3.12(.87)	3.17(.84)	3.05(.83)	3.01(.68)
	t(p)	2.362(.020)	3.490(.001)	4.214(.000)	2.603(.010)	1.941(.054)	3.881(.000)	3.505(.001)
Age (years)	Under 21	3.05(.72)	3.05(.66)	3.06(.61)	3.28(.80)	3.24(.79)	3.22(.79)	3.10(.60)
	Above 21	3.34(.65)	3.27(.62)	3.34(.54)	3.33(.74)	3.37(.73)	3.43(.74)	3.33(.56)
	t(p)	-3.030(.003)	-2.467(.014)	-3.546(.000)	-.425(.671)	-1.189(.236)	-1.975(.045)	-2.780(.006)
Type of residence	Home	3.09(.67)	3.06(.61)	3.11(.60)	3.22(.71)	3.19(.74)	3.26(.82)	3.12(.58)
	Dormitory, boarding house	3.25(.53)	3.18(.67)	3.35(.60)	3.47(.77)	3.34(.81)	3.34(.70)	3.30(.55)
	Self, relatives	3.31(.80)	3.37(.67)	3.25(.55)	3.36(.87)	3.47(.76)	3.41(.72)	3.32(.61)
	F(p)	2.191(.114)	3.006(.052)	2.665(.072)	1.546(.216)	2.795(.063)	.737(.480)	2.677(.071)
High school type	General school	3.39(.59)	3.35(.51)	3.38(.44)	3.51(.66)	3.47(.63)	3.54(.62)	3.41(.42)
	graduate school	2.88(.74)	2.85(.72)	2.91(.68)	2.99(.82)	3.04(.87)	2.97(.85)	2.91(.68)
	t(p)	5.371(.000)	5.428(.000)	5.492(.000)	4.767(.000)	3.760(.000)	5.227(.000)	5.824(.000)

있는 변수는 없었고, 출신고교 유형에서는 ‘인문계’에서 ‘실업계 및 기타’보다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3.54 ± 0.62), 학습에 대한 호기심(3.51 ± 0.66), 자기이해(3.47 ± 0.63), 학습에 대한 애착(3.39 ± 0.59), 도전에 대한 개방성(3.38 ± 0.44),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3.35 ± 0.51) 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았다.

4.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절차로 잔차에 대한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1.779이었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72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N=204)

	a	b	c	d	e	f	g	h	i	j	k
a	1.000										
b	.725*	1.000									
c	.597*	.575*	1.000								
d	.894*	.878*	.835*	1.000							
e	.644*	.676*	.559*	.720*	1.000						
f	.541*	.704*	.535*	.680*	.785*	1.000					
g	.681*	.709*	.663*	.787*	.734*	.755*	1.000				
h	.544*	.606*	.533*	.645*	.674*	.687*	.734*	1.000			
i	.400*	.578*	.494*	.562*	.625*	.679*	.607*	.559*	1.000		
j	.463*	.592*	.456*	.578*	.647*	.699*	.617*	.521*	.592*	1.000	
k	.668*	.764*	.642*	.794*	.908*	.919*	.893*	.822*	.743*	.752*	1.000

* $p < .001$

a: Task difficulty preference, b: Self-control efficacy, c: Self-confidence, d: Total academic Self-efficacy, e: Attachment to learning, f: Self-innovation as learner, g: Openness to challenge, h: Curiosity about learning, I: Self-understanding, j: Total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Table 5.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Variables	B	S.E	Beta	t	p	R ²	Adjusted R ²
Constant	1.059	.117		9.060	.000		
Self-control efficacy	.418	.051	.511	8.169	.000	.584	.582
Self-confidence	.184	.037	.265	4.942	.000	.645	.642
Task difficulty preference	.118	.054	.139	2.184	.030	.654	.649

위한 검정 결과 공차한계는 .201~.303이었고, VIF값은 3.296~4.96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5>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조절 효능감($t=8.169$, $p<.001$)으로 설명력은 58.4%였고, 다음으로 자신감($t=4.942$, $p<.001$), 과제난이도 선호($t=2.184$, $p=.030$) 순으로 전체적인 설명력은 65.4%였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일부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1~5점 범위에서 3.03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이 결과는 평생학습기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Joo와 Jeon[16]의 연구에서 평균 3.21점,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5]의 연구에서 3.40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Choi[17]의 연구에서 장애학생 2.95점, 비장애학생 3.15점으로 나타나 학제와 지역, 대상자간에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별과 나이, 거주형태, 고교 졸업 형태로 구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1세 이상이 20세 미만보다, 기숙사 및 하숙이 자취 및 기타나 자택보다,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가 실업계 및 기타를 졸업한 경우 보다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이유로, 최근에 남학생들이 응급구조과에 많이 입학하면서 스

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학업에 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18], Lee[5]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대학생들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흥미나 관심에 의해 지원하기 보다는 수능성적에 맞추거나 보건의계열이 취업이 잘된다고 막연히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외재적 동기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찾아내려는 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 2.85점, 과제난이도 선호 2.94점, 자신감 3.34점으로 Lee[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조절 효능감 3.55점, 자신감 3.43점, 과제난이도 선호 3.24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Chae[19]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 효능감 37.4점, 과제수준 선호 35.8점, 자신감 31.61점으로 이를 비교해 볼 때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인 자신감은 비교적 높지만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수준 선호와 자기 판단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조절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Park[20]은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목표 설정, 목표실행과정에서의 인지, 동기 및 행동을 점검하고, 조절하고, 모니터링, 통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Kim[21]은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프로그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이 가져다줄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스스로 동기화되어 행동하게 함으로써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졸업 후 병원 전 상황에서 환자의 신체검

진과 병력조사 등을 통하여 추정진단을 내리고 응급처치를 제공하여야 할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자기조절학습 전략 향상 프로그램이 성별과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연구되어짐과 동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평균은 1~5점 범위에서 3.21점으로 중간 이상이였다. 이 결과는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5]의 연구에서 평균 3.44점, Joo와 Jeon[16]의 연구에서 3.42점, G광역시 3년제 전문대학 학생 대상인 Park[22]의 연구에서 평균 3.46점, 간호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23]의 연구에서 평균 3.51점 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1세 이상이 20세 미만보다,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가 실업계 및 기타보다 높았다. No[24]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교서열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20세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대학 1학년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수동적인 교육에 의존한 교육방법에 익숙한 상태이고, 21세 이상이면 남학생의 경우는 학습의 자율성 경험이 있는 상급생이고 군대를 다녀온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학습에 대한 애착 3.19점,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 3.16점, 도전에 대한 개방성 3.19점, 학습에 대한 호기심 3.31점, 자기이해 3.30점,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3.32점으로 중간 이상이기에는 하나 Park[22]과 Lee[5]의 연구에서 보다는 낮은 점수로 지역과 전공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체계적인 변인으로 보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성

취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며[25]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갖추어져 있으면 대학생들에서 학업효과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취업가능성과 대인관계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별화된 증상과 징후를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인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교육방법이나 통합된 임상 재현형 실습의 반복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r=.794$)를 보였고 하위요인들 간에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r=.400\sim.919$)를 보였다. 이 결과는 Lee[15]의 4년제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r=.520$), Joo와 Jeon[16]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r=.557$)에서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r=.764$), Zimmerman과 Martinez-Pons[26]연구의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Guglielmino[15]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학습에 대한 애착과 자기확신, 호기심, 개방성, 자기이해, 책임수용 등의 요인이 포함되는데, 이처럼 관련된 변인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응급구조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시행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차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조절 효능감으로 설명력은 58.4%였고, 다음으로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전체적인 설명력은 65.4%였다. 이 결과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Joo와 Jeon[16]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50%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Bandura[6]와 Zimmerman과 Martinez-pons[26]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진학과 진로선택과 관련이 있고, 학업성취와 동기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뛰어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가진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임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하위요인, 즉 자기조절 효능감이나 자신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되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부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급구조과 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검사를 질문지에 의해 실시하여 유효응답자 2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중간 이상이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면서 21세 이상, 기숙사 및 하숙을 하거나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에서 높았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남학생이면서 21세 이상, 인문계를 졸업한 경우에서 높았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높은 상관이 있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다. 다섯째,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의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즉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즐거움과 흥미·관심을 가지고 학업을 시작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학습동기를 어떻게 학교 교육현장에서 함양시켜 줄 수 있는가를 응급구조학을 교육하는 자들은 더욱 많이 고민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관계연구와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Cha YH. The effect of th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s crea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009;5(1):141-163.
2. Ma SO.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1, Seoul, Korea.
3. Park JY. Effect analysis of social support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f university Students. *J Educ Res* 2004; 42(2):247-269.
4. Kim GY. (The) relationship of elementary children'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9, Seoul, Korea.
5. Lee YJ.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2, Seoul, Korea.
6. Bandura A, Schunk DH.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 Pers Soc Psychol* 1981;41:586-598.
7. Pintrich PR, De Groot EV.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beliefs and classroom contextual factors on the process of conceptual change. *Rev Educ Res* 1990;63(1):167-199.
8. Zimmerman BJ, Bandura A, Martinez-Pons M.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92;29(3):663-676.
9. Long HB, Agykum SA.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in self-directed learning. *Oklahoma Research Ctr for.* 1990;15: 279-293.
10.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1977;84(2):191-215.
11. Heo EY. The effects of creative discretionary activity in a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Ewha Research Institute of Curriculum Instruction* 2010;14(1):1-20.
12. Lee J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J Educ Res* 2010;48(2):67-92.
13. Sim MJ, Oh HS.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of the Contents Association* 2012;12(6):328-329.
14. Kim AY, Park IY. Academic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and good at study powered by bing. *J Educ Res* 2001;39(1); 95-123.
15. Guglielmino LM.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Georgia 1997, Athens, USA.
16. Joo DB., Jeon ES. The influence of adult

- learners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self-efficacy.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2011;30(1):15-28.
17. Lee JA, Choi. EY. Comparison between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supports, and career aspirations. Korea Disabled Employment Agency Employment Agency 2010;20(2): 55-76.
 18. Yu IS. A Relationship among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0, Jeonju, Korea.
 19. Chae MS. Effects of personality prefer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on dentistry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8, Gwangju, Korea.
 20. Park SH. The role of motivation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03;17(1):55-70.
 21. Kim MH. The effects of th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raining program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2, Chuncheon, Korea.
 22. Park HS.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ir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DongKang College University 2009, Gwang-ju, Korea.
 23. Kwon MS.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1;17(3): 389-396.
 24. No MA. The relationships of inside and outside of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f college students of high self-initiative in the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9, Seoul, Korea.
 25. Knowles M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75. 135.
 26. Zimmerman BJ, Martinez-Pons M.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 Educ Psychol 1990;82(1):51-59.